

나, 여기, 지금에서 본 陶行知의 교육*

김덕삼** · 이경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왜 나, 여기, 지금인가?
3.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
 - 3.1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의 삶
 - 3.2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의 교육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陶行知는 1881년에 태어나서 1946년에 사망했다. 도행지가 활동하였던 당시는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로서 淸佛戰爭(1884), 中日戰爭(1894), 신해혁명(1911), 중화민국성립(1912) 등의 중대사건이 일어났다. 도행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 실제생활과의 연계를 중시하여 ‘生活卽教育’을 강조하였다. 도행지가 생활교육을 중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은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나 생활 속의 교육을 무시하지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中國 武漢 華東師範大學에서 개최한 “陶行知與中外文化教育” 國際學術研討會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제1저자)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나 소홀히 여기고 지식 전달이나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행지가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는 도행지가 활동했던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적지 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도행지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활발하게 연구된 것도 아니지만, 몇몇 학자의 연구로 그나마 다양하게 진행되었다.¹⁾ 현재까지 도행지 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없고, 석사학위논문은 3편, 학술논문은 17편이 있다.²⁾ 17편 가운데 7편이 생활교육을 다루고 있다. 아무래도 도행지의 생활교육이 도행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서 도행지의 삶 전반에 대한 것이 2편인데, 이는 한국에서 도행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그의 사상과 행적을 소개하고 알리는 수준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행지와 관련하여 비교적 전문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저자별로는 김귀성의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다. 그 외 이병주와 이경자의 논문이 2편이고 나머지는 한편씩이다. 단행본의 경우 전적으로 도행지를 다루거나 소개한 것은 2권 정도에 불과하다.³⁾

중국에서의 도행지 관련 연구와 한국에서의 학문 분위기에 호응하여 앞으로

-
- 1) 물론 중국에서는 전문학술지와 연구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본 논문이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이기에 중국에서의 연구 동향은 생략했다.
 - 2) 도행지를 직접 다루지 않아서 앞에서 언급한 17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중 있게 거론한 논문 1편이 있다(손승희, <武訓, 《武訓傳》 批判과 平反>, 《대구사학》 104, 2011) 잘 알려져 있듯이 1951년에 영화 '武訓傳'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도행지가 일찍이 제창했던 '신무훈정신'과 관계되는 것을 다루었다. 역사의 오해로 그의 생활교육이 비판당하기도 했지만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비로소 그 명예를 회복했다.
 - 3) 선행연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논문과 학술 서적 정보를 담고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를 위주로 검색하였다. 교보문고스콜라(<http://libproxy.gnu.ac.kr>)와 국내학회지(<http://libproxy.gnu.ac.kr>) 등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검색어로는 안원의 경우는 '顔元', '안원'을 중심으로 하였다. 도행지는 '陶行知', '도행지', '타오싱즈', '타오싱즈', '타오썩즈'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陶行知라는 한자어 외에 한글 표기인 도행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 발음에 기초한 한글표기로 타오싱즈, 타오싱즈, 타오썩즈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검색결과 타오썩즈의 경우는 검색되지 않았다. 자료는 2105년 9월 25일부터 2016년 8월 28일까지 검색하였고, 구체적인 논문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덕삼, <顔元和 陶行知에 대한 국내 연구 상황과 의미 분석>, 《인문학연구》 13집, 2016년, 11-14쪽.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행지의 교육 사상과 그의 생활 교육 등은 앞으로도 한국 교육에서 지속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행지의 교육사상과 실천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실천과 행동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도행지의 교육사상과 맞물려 비슷한 성향의 인물과 사상을 비교하거나, 이를 한국화 혹은 현대화 하는 연구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물론 관련 소개서도 아직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도행지 관련 번역서와 연구서의 출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도행지 개인이나 그의 교육 활동 중심에서 탈피하여, 도행지의 생활 교육에서도 중시되었던 나, 여기, 지금을 기초로 거꾸로 도행지의 생애와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행지의 삶과 사상에서 생활과 실천이 강조된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이고 생활 중심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왜 나, 여기, 지금인지 설명하고, 이어서 나, 여기, 지금을 통해 도행지의 삶과 교육사상을 조명해보면서 중국의 교육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왜 나, 여기, 지금인가?

《庄子》 逍遙游篇은 거대한 大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북명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은 곤(鯁)이다. 곤은 크다. 몇 천리에 이르는 지 알 수 없다. 곤이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은 봉(鵬)이다. 봉의 등 넓이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힘차게 날면 그 날개는 하늘을 드리운 구름과 같다.

鵬程万里라는 말도 이처럼 웅대한 大鵬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매미와 비둘기는 대봉을 보면서 자신들은 힘껏 날아야 느릅나무에 머무르는 정도인데 어찌서 9만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가려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매미와 비둘기가 그(대봉)를 비웃으며 말한다. 내가 마음먹고 날면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이르지만,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 땅에 동뎁이쳐진다. 어찌 9만 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하는가?

혹자들은 장자의 이글을 보고 대봉이 매미와 비둘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소요유의 이 부분에서도 장자는 매미와 비둘기를 약간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장자는 기본적으로 相對的인 비교와 구별을 넘어서서 道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봉에게는 대봉의 것이 매미와 비둘기에게는 그들의 도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대봉이 좋고 매미와 비둘기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胡蝶之夢처럼 나비인지 庄周인지 어느 것이 옳은지 되물었고, 급기야 天下篇에서는 不譴是非라하여 是是非非를 따지거나 꾸짖지 않겠다고 말한다.⁴⁾ 이처럼 《장자》에서는 상대적 분별에 집착하기보다, 장자와 나비, 대봉과 매미, 옳고 그름 등을 아우르는 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강조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키가 작아서, 혹은 뚱뚱해서 자신이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반기를 들며 장자가 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한 것처럼, 노자도 도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자 했다. 긴 것은 긴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긴 것과 짧은 것이 대립하고 다투

4) 宋恩榮, 呂達主編, 《當代中國教育史論》, 金德三, <莊子思想與當代教育>, 人民教育出版社, 2004.

5) 金德三, <《장자》의 현대 교육적 해석>,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는 것이 아니라, 서로 調和를 이루어 '길이'를 만들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바로 《老子》 2장에서 말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서로 도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相反相成의 이치이다.⁶⁾

서로 반대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의 시각에서는 대립과 경쟁으로 점철되겠지만 노자와 장자처럼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인류와 우주 만물과도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공자의 和而不同이 실현되고, 부처의 慈悲와 예수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가 무엇인지, 일반인들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문제다. 도는 본질에 가깝다. 그래서 장자는 西施曠目이라는 고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겉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주장했고, 노자의 상반상성도 본질에 기초하여 대립이 아닌 조화를 택한 것이다. 심지어 부처도 見指望月을 통해 이것을 강조했다.

이쯤에서 우리는 논의를 본고의 주제와 맞게 좁혀서, 성현들이 말한 '도'가 무엇인지, 혹은 '본질'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도를 체험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은 너나 그가 아닌 나이고, 저기와 거기가 아니라 내가 서있는 바로 여기이고, 지나간 과거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쉬며 존재하는 바로 지금이 본질에 보다 가깝고 구체적이다.⁷⁾

6)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中國道教》 73, 中國道教學會, 2003.

7) 나와 여기와 지금에 대하여 그 동안, 중국의 道家思想을 한국의 입장에서 수용하면서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고(김덕삼, 《中國 道家史序說 1》, 경인문화사, 2004년), 국가와 국가 사이의 文化交流에 있어서도, 개인과 개인의 학습과 발전에 있어서도 나와 여기와 지금을 우선시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했다(김덕삼, 《문수창: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년), 또한 논문으로는 나 여기 지금과 관련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김덕삼·최원혁, <선천역학에 나타난 공감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유교사상문화연구》, 2014; 김덕삼·최원혁, <선진유가에 나타난 공감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유교사상문화연구》, 2013; 김덕삼·최원혁, <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 《인문연구》, 2013 등).

이것은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거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도출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잡은 것과 통한다. 마치 公理 위에서 論理學과 數學의 거대한 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 여기, 지금은 우리 삶의 피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 최소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교육사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거쳤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추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자의 교육, 과거제도의 실시, 근대 서양교육의 전파이다. 이 세 가지 교육적 사건은 당시 교육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 사이에서 적절한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교육적 사건들은 臨界点에서 畫龍点睛 같은 역할을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교육적 변화는 당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공자의 교육방법도, 과거제도의 선발방식도 이미 앞선 세대에 있었고, 심지어 근대 서양 교육 전파로 강조된 실용교육과 과학교육도 明末清初의 顏元(1635-1704)이나 다른 많은 교육자들에 의해서 거론되었던 것이다.⁸⁾

거대한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그 변화가 나타난다. 모든 교육적 변화의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적 요구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시도가 의미 있게 된다. 바로 앞서 언급한 임계점과 같다. 물 99℃와 100℃는 1℃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액체로 있느냐 기체로 있느냐라는 매우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큰 맥락에서 볼 때, 교육적 변화의 성공 여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8) 이러한 현상은 단지 교육의 변화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얻어내어 1:29:300의 법칙으로 일컫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도 이러한 예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더 정교하게 다듬은 버드 법칙의 1(사망):10(경상):30(물적 피해):600(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사회적 변화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天命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이 인간으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으르게 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명이전에 盡人事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할 도리와 노력을 다한 뒤에야 비로소 천명을 기다릴[待]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교육적 사건의 공통점은 나, 여기, 지금이 요구하는 소리에 충실하여 나와 여기와 지금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였다.

‘나’는 행위와 판단의 주체로서 나의 능력에 충실하고, ‘여기’는 여기의 상황에 충실하며, ‘지금’은 지금의 요구에 충신했다. 즉 이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만든 나와 여기와 지금에 대한 문제과외에서 출발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저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의 문제였으며, 과거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에서 대안을 찾고 실행하였다. 결국 盡人事해서 성공한 사건이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와 저기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성공으로 열매 맺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지목한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룬 사건 외에도, 중국의 역사에는 교육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도행지의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도행지도 생활이 교육이라는 신념, 실천적 교육의 중시, 탁상행정에서 머문 것이 아닌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나’와 당시 중국이 처해있던 현실인 ‘여기’와 ‘지금’에 충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기, 지금이라는 도구로 도행지의 삶의 궤적과 그가 고민하던 중국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3.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

3.1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的 삶

앞서 언급했지만 도행지는 1891년에 安徽省 歙縣에서 태어나서 1946년에 사망했다. 그가 살았던 당시는 1894년에 淸日戰爭이 일어나고, 1900년에 義和團 운동, 1911년 辛亥革命, 1919년 5·4운동, 1920년 共産党 創立, 이어서 항일운동과 國共間의 內戰,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 建國 등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⁹⁾

당시 시대 상황만큼이나 도행지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당시 시대처럼 불안정하였다.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것, 미국 유학에서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존 듀이(J. Dewey)에게 지도를 받게 된 것, 귀국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종사하게 된 것도 하나의 정해진 모범 답안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나와 여기와 지금에 충실하여 결정한 행동의 결과물이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나와 여기와 지금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변화의 시기에 그 중심을 잡게 하여, 마치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행지의 교육적 생애에서 나와 여기와 지금이 작용한 가장 커다란 측면은 나, 여기, 지금에 따른 교육 장소와 대상의 변화에서 발견된다. 도행지는 그의 교육적 생애에서 농촌과 공장과 사회 등으로 인재 양성의 대상과 교육 장소를 나와 여기와 지금에 맞게 변화시키며 교육에 종사하였다. 변화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¹⁰⁾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

9) 김덕삼·이경자, <실천의 측면에서 본 안원과 도행지의 교육사상>, 《儒教思想文化研究》, 2016, 323쪽.

10) Gene E. Hall·Shirley M. Hord 공저, 양성관 외 공역, 《학교 변화와 혁신 패턴, 원리,

다.

그래서 도행지는 당시 자신과 중국 그리고 중국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행동하였다. 도행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는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농촌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촌으로 달려가 교육하였다. 도행지가 농촌으로 향한 것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비취진 전통 교육의 문제를 발견하고, 당시 중국이 직면하고 있던 반식민지와 반봉건치하에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농촌에서 민족해방과 민중교육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어서 생활교육에서는 그 무대를 사회로 생각하여 ‘사회가 학교’라고 주장하였다. 사회가 학교라는 도행지의 주장은 듀이가 ‘학교가 사회’라는 것을 확장해서 해석한 것이다. 도행지는 학교가 사회라는 주장에서 학교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사회가 학교라고 주장하였다. 사회가 학교가 되면 교육의 재료, 방법, 공구, 환경 모두 커지고, 학생과 선생 또한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¹¹⁾

도행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의 외연과 교육의 실천적이고 현실참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도행지가 있던 그때와 그곳을 중심으로 생각하였기에 듀이의 이론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좋은 예이다.

도행지는 1931년 봄 일본에서 귀국 한 뒤에 科學普及과 아동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1932년 10월에는 山海工學團을 창립하면서 공장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1935년 ‘12.9사변’ 이후에는 國難教育運動을 전개하고, 1937년 ‘7.7사변’ 이후에는 戰時教育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9년 7월에는 育材學校를 세워 우수한 아이를 배양하여 抗戰建國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1946년 1월에는 社會大學을 설립하여 생활교육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도행지는 그의 삶에서 나, 여기, 지금에 따라 교육의 좌표를 결정하고 행동

당면과제》, 학지사, 2011, 29쪽.

11) 《鄉村教師》第1期(1930년 3월 1일), 董寶良 主編, 《陶行知教育名篇選》, 人民教育出版社, 2015년, 39쪽, 재인용.

하였다. 그래서 學前教育에서 職業高等教育까지, 농촌에서 도시까지, 농민에서 공장 노동자까지, 어린아이에서 성인남녀까지, 民衆啓蒙教育에서 抗戰教育과 民主教育까지 아우를 수 있었다. 어느 하나에 고정되기보다, 나와 여기와 지금의 변화와 그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에서 사상적으로 도행지가 생활과 실천을 중시한 것은 바로 자신이 당시의 상황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얹이 剝製化 되는 것이 아니라 얹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교육은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학습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나와, 내가 활동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여기와 지금에 대한 파악이 없다면 얹도 그리고 얹을 완성하는 실천도 모두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천적이고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시한 그의 행적으로 그는 교육이론이나 학문적 업적을 세운 교육자로서의 가치보다 현장에서 교육을 행하고 실천한 인물로서 가치가 더 크다.

도행지의 교육은 말로 외치다 끝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스스로 직접 행동하여 실행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배가시켰다. 도행지는 자신의 삶을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시하여 판단했고, 자신의 교육이론도 나와 여기와 지금을 강조하는 생활교육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교육자와 구별되는 도행지의 삶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으로 국가와 백성의 어려움을 구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도행지의 교육활동은 국가와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民族解放大學校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다. 도행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을 일러 ‘구국교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은 무엇을 할까요? 나라를 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학생은 무엇을 배울까요? 나라를 구하는 것을 배웁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모두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¹²⁾

12) 陶行知, 《中國教育改造》, 東方出版社, 1996年, 181쪽. 이하 도행지관련 원문번역 가운데 일부는 과거의 번역을 기초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이경자, <도행지의 생활교육사

도행지는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부합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구하는 교육이었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은 당시 중국 사회의 요청이었기에 이에 부응한 것이다. 즉, 나와 여기와 지금에 의거하여 택한 한시적 목표이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교육은 국가의 만년의 大計입니다.”라고¹³⁾ 강조하며 국가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교육의 목표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도행지는 중국 사람의 해방과 행복을 위하여 교육에 매진하였다. 도행지가 생각하기에 과거시험은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면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당시 전래된 서양의 교육도 일반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면이 많았다.¹⁴⁾

도행지가 생각한 당시 교육의 근본에는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이 작용했다. 당시 중국은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85%이상을 차지하고, 문맹자는 3억3천여만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행지가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백성들의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발전 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도행지는 당시 교육의 문제를 당시 국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생각하면서 교육으로 국가와 백성의 발전을 모색하려 하였다.

둘째, 도행지는 자신의 신념과 교육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교육이 지금의 시스템으로 고착되기 전에 사람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인류의 문명은 바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진승된 것이다.

도행지가 1936년에 발표한 논문인 <生活即教育>에서 생활 교육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생활교육은 생활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생활에서 운영되던 것이었으며,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었다.”¹⁵⁾ 이와 같은

상 >, 《교육비평》 Vol.11, 2003; 이경자, <타오싱즈 생활교육론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교육철학연구》 Vol.38, 2007)

13) 董宝良 主編,《陶行知教育名篇選》, 人民教育出版社, 2015年, 4쪽.

14) 《陶行知全集》 第2卷, 湖南教育出版社, 1985年, 76쪽.

생활교육은 인류 생활의 변화에 따라 변하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활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인류에게 있어서 교육과 생활의 관계는 밀접하다. 교육은 생활로부터 왔고, 생활이 더 나아지기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생활 속에 변화는 중요한 것이다.¹⁵⁾ 도행지는 이러한 생각으로 교육에서 생활을 중시하여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립하였다.

셋째, 도행지는 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와 명예는 그 다음으로 생각했다. 도행지는 교육일선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교육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영향을 주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도행지의 생활에서 보면, 도행지처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았다.

물론 도행지의 경우도 미국유학을 마치고 1917년에 귀국하였는데, 그는 당시 20년대초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한 곳인 南京高等師範(지금의 南京大學)의 교수가 되었다. 더불어 당시 전국 규모의 교육단체인 中華教育改進社의 총책임과 中華教育文化基金 이사회의 집행을 맡았다. 도행지는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도행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중국 일반 서민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교육의 현장과 교육의 실천과 생활의 교육에 헌신하였다.

도행지는 중국의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滅私奉公의 자세로 교육 활동에 임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의 영향아래서 농·공인들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생활을 하였다.

15) 《陶行知全集》 第3卷, 四川教育出版社, 1991年, 246쪽.

16) 이경자, <타오싱즈 생활교육론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교육철학연구》 Vol.38, 2007, 170-171쪽.

3.2 나, 여기, 지금과 陶行知的 교육

도행지는 《普及教育》, 《中國教育改造》, 《中國鄉村教育之根本改造》, 《古廟敲鐘錄》, 《知行書信》, 《行知詩歌集》 등과 같은 교육 저작을 남겼다. 그는 이러한 저작에서 자신이 처한 나와 여기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당시 사회의 문제와 교육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행지의 다양한 교육 사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생활’을 강조한 그의 교육사상이다. 그래서 도행지의 교육사상은 ‘생활교육’으로 도행지 교육의 사상적 가치가 집중된다. 생활교육으로 대표된 도행지의 교육 사상과 그의 실천 정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그가 어린 시절 공부했던 교육이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明의 理學家 王陽明의 ‘知行合一’사상과 그의 사상은 정신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도행지는 어린 시절에 方庶鹹에 발탁되어 私塾에서 공부하고, 15세에 歙縣의 崇一學堂에서 공부하고, 1908년에는 杭州의 廣濟醫學堂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南京 彙文書院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도행지는 1910년 南京의 金陵大學 文科에 입학하면서 孫文의 民主革命에 영향을 받고, 王陽明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王陽明의 ‘知是行之始, 行是知之成’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文濬’에서 ‘知行’으로 바꾼다. 그리고 1934년에 行을 知的 출발로, 知를 行의 요소로 생각하게 되어 知行에서 行知로 바꿨다. 바로 실천과 생활을 강조한 그의 교육 철학의 기초를 만들게 된 것이다.

둘째, 미국 유학을 통한 교육이다. 1914년 金陵大學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도행지는 미국에서의 유학생 생활 중에서도 그를 지도했던 존 듀이의 교육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도행지는 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중국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수용하여 실천하였다. 그는 듀이가 강조한 실용주의 교육은 서양의 현대 교육 사조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귀국 후의 교육활동을 통해 깨달았다. 그래서 도행지는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이 중국의 당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맞는 것을 찾게 되는데, 대

표적인 것이 그의 생활교육이다. 생활교육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활이 교육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을 기초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귀국 후 교육 현장에서 보고 느낀 중국의 교육 현실을 통한 그의 깨달음이다. 도행지는 그 동안의 배움을 생활을 중심으로 한 실천의 교육으로 구체화하였다. 비록 도행지가 활동할 당시 중국에서는 癸卯學制가 시행되어 전통 교육과 다른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도행지는 당시의 중국 현실에 맞는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생각하고 실천하였다. 도행지가 주장한 생활교육은 바로 나, 여기, 지금에서 출발하고 나와 여기와 지금에 충실한 교육이다. 그러기에 교육이 생활이라는 것에서 생활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의미로 확장한 것이다. 이는 나와 여기와 지금의 교육에서 너와 우리의 교육으로, 저기와 거기의 교육으로, 과거와 미래의 교육으로의 확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르침과 배움의 하나됨 즉, 教學合一의 교육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숨 쉬는 곳으로서 도행지가 말한 생활과 밀접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행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활주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무릇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욕구는 생활 속에 있다. 생활의 범위는 넓으며, 실제에 있어 교육과 대등한 것이다. 직업과 관련된 생활은 곧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며, 여가와 관련된 생활은 곧 여가와 관련된 교육이며, 사교와 관련된 생활은 곧 사교와 관련된 교육이며, 자연계와 관련된 생활은 곧 자연계와 관련된 교육이다.¹⁷⁾

물론 도행지가 생활을 중시하였다고 해서 생활 그 자체만으로 모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활과 좋은 교육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생활과

17) 《陶行知全集》 第一卷, 四川教育出版社, 1991年, 12쪽.

좋지 못한 교육이 있다. 그가 주장한 올바른 생활과 교육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생활은 건강한 교육이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교육이다. 노동하는 생활은 노동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노동하지 않는 생활은 노동하지 않는 교육이다. 예술적인 생활은 예술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비예술적인 생활은 비예술적인 교육이다. 과학적인 생활은 과학적인 교육이다. 비과학적인 생활은 비과학적인 교육이다. 사회를 개조하는 생활은 사회를 개조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회를 개조하지 못하는 생활은 바로 사회를 개조하지 못하는 교육이다. 계획적인 생활은 계획적인 교육이고 계획이 없는 생활은 무계획적인 교육이다. 교육은 생활이어야 하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지 거짓된 교육을 해서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이 빵을 원하면 빵을 얻을 수 있는 생활에 따라 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성 교제를 원하면 우리는 바로 이성 교제를 하는 생활에 따라 이성 교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¹⁸⁾

도행지는 생활 중심의 교육이 아니면 이것은 죽은 교육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생활 중심의 학교가 아니면 이것도 죽은 학교라고 생각했다. 교과서도 생활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면 죽은 교과서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땅의 교육이 생활교육이고,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 사회는 학교였고, 생활은 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있는 이래로 사회는 학교였고 생활은 교육이었다. 사대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특수학교에서 그들의 자제들에게 특수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는 대중의 유일한 학교이고 생활은 대중의 유일한 교육이다. 대중은 정식으로 이것을 인정하며 더불어 이를 통해 자신의 지식, 역량, 믿음을 증가시킨다.¹⁹⁾

도행지는 교육의 힘으로서 인간의 정서와 욕구를 조정하여 天理와 인간의

18) 《陶行知全集》 第2卷, 1991, 490-491쪽.

19) 《陶行知全集》 第3卷, 1991, 247쪽.

욕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여기와 지금 즉, 생활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교육은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다. …… 어떠한 생활을 하는 가는 바로 어떠한 교육을 받는가이다. 즉 건전한 생활을 하면 건전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과학적 생활을 하면 과학적 생활을 받는 것이다. 노동생활을 하면 노동교육을 받는 것이고, 예술적 생활을 하면 예술적 교육을 받는 것이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²⁰⁾

도행지가 강조한 생활교육에서 나와 여기와 지금은 중요하다. 이것은 도행지의 스승 듀이도 강조했던 바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현재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도행지도 오늘과 지금을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현대인이다. 현대 생활을 하려고 하면 현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거의 생활도 미래의 생활도 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과거 생활을 하게 되면 이는 낙오된 삶이며 미래의 생활을 하게 되면 대중과 유리된다. …… 오늘의 학교를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오늘의 생활을 하도록 하려면 오늘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²¹⁾

나와 여기와 지금에 기초한 사유는 도행지 자신의 삶과 도행지의 교육사상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그는 나와 여기와 지금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려고 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가고, 직접 실천하고 교육하면서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교육 사상, 그 가운데에서도 생활교육과 일치한다. 도행지의 생활은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을 기초로 한다.

도행지가 주장한 ‘活的教育’ 즉,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와 여기와 지금을 중시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도행지는 교육은 세 가지로 구분이

20) 《陶行知全集》 第2卷, 1991, 490쪽.

21) 도행지 저, 김귀성 편역,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내일을 여는 책, 1996. 25쪽.

되는데, 바로 죽은 교육, 죽지도 살지도 않은 교육,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살아 있는 교육이란 물고기가 물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살아 숨 쉬며 있는 것이고, 새가 숲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화초에게 봄날의 햇살처럼 자양을 주는 것과 같아 매일매일 진보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²²⁾

앞선 시대에 시행되었던 많은 교육적 변화와 교육 관련 사건이 모두 성공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도행지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도행지는 사망한 뒤 역사의 오해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즉, 1951년에 영화 <武訓傳>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는데 이는 부르주아 사상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된다. 같은 해 6월 '人民教育'에서 시작되어 교육계에서도 비판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 陳鶴琴의 '활교육', 도행지가 언급한 '신무훈정신'과 관련되어 생활교육까지 확대되었고 반좌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비판되었다. 당연히 도행지와 그의 교육사상이 비판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열린 제11기 3중 쏘체이후, 도행지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 안휘성의 操震球, 揚壽南, 丁右涵, 陳文達, 高越 등이 도행지 연구 단체를 조직하고, 1980년에는 도행지연구회가 성립되어 제1기 <행지연구>가 출판되었다. 안휘성의 당서기인 張勁夫도 연구를 지원하였고 도행지연구회가 중국 전역에 확대되었다. 도행지 사후 명예가 회복되고 난 뒤, 도행지의 저작을 모아서 1985년에 <<陶行知全集>>6권(湖南教育出版社)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1991년 탄생 100주년에 맞춰 <<陶行知全集>>10권(四川教育出版社)이 출간되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적으로 큰 사건이다. 그 속에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밖에 더 작은 미시적인 사건들이 다양하게 발생했다. 결국 커다란 교육적 변화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도행지의 삶과 교육사

22) <<時事新報·學燈>>(1922년 1월 18-19일), 董寶良 主編, <<陶行知教育名篇選>>, 人民教育出版社, 2015년, 182쪽, 재인용.

상도 이와 같다.

도행지가 행한 교육은 서양 교육의 수용이라는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 속에 일어난 교육적 사건이다. 자연스레 근대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도행지는 서양 교육이 중국에 수용되었던 당시의 중국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미국으로의 유학을 시행한다. 미국 유학에서 존 듀이의 학생으로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중국에 돌아와 지식인 계층으로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평민 복장을 하면서 중국 백성의 교육과 발전을 생각하였다. 당시 중국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속에 자신의 삶을 펼쳤던 도행지도 그가 죽고 난 사후에 역사의 평가와 사건들에 의해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도행지가 죽고 난 지금과 미래, 도행지에 대한 평가는 후세대들의 나와 여기와 지금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평가받을 것이다.

도행지의 삶과 그의 교육 사상은 결국 작고 미시적인 다양한 사건들이 점철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작고 다양한 사건들은 도행지와 도행지가 살았던 그 때와 그 곳에서 스스로 던진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속에 이루어졌기에 지금 여기 나의 상황에 맞춰 다시 되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행지의 실천, 생활은 당시의 실천과 생활과 동일할 수 없다. 마치 《장자》소요유편에서 언급한 대붕과 비둘기의 차이처럼, 각자의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공자의 사상이 오늘날까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나, 여기, 지금에서 계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창조되었던 후세대의 노력과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도행지가 생활을 언급하면서 말했던 것과 통한다. “교육의 근본 의의는 생활의 변화이다. 생활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으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²³⁾

더 나아가 도행지의 교육사상도 나에서 너 그리고 우리로, 여기에서 저기로, 지금에서 과거를 아우르며 미래로 확장되어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으로 성장할

23) 《陶行知全集》 第3卷, 1991년, 246쪽.

수 있도록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행지가 시도한 교육의 개혁이나 과거 오랫동안 중국의 발전을 추인하는 동인으로서의 교육개혁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은 경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도행지 연구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되, 도행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여기와 지금에서 되물으며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도행지가 중국의 실천적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고,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나와 여기와 지금에 맞춰 적용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행지의 가치는 결국 그를 따르는 후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에 달려 있을 것이고, 도행지의 정신은 도행지의 '죽은 말'에서 벗어나 '살아 있는 실천'으로 바로 '지금'과 '여기'와 '우리 자신'의 삶과 생활을 중시하는 울림으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西施墮目的 愚를 범하지 않고, 도행지가 평생을 바쳐 강조한 '실천'과 '생활'을 중시한 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행지 연구는 '지금', '여기', '나'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그의 교육이론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武漢의 華中師範大學 등에 그를 연구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국내외 학술대회가 열리고, 陶行知國際研究中心 등의 기구가 중심이 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행지 사상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행지 사상의 해석과 응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외연의 확장을 모색하고, 세계 각국의 학자와의 교류를 통해 도행지 연구가 세계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행지의 교육 사상은 綜合創新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나와 여기와 지금의 틀과 중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접목하여, 중국의 교육가 도행지를 탐구해 보았다. 과거,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교육적 사건의 공통점은 나, 여기, 지금이 요구하는 소리에 충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행지의 교육적 가치를 나, 여기, 지금과 연계하여 도행지 개인의 삶에서 알아보았다. 도행지의 삶은 앞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學前教育에서 직업고등교육까지, 농촌에서 도시까지, 농민에서 공장 노동자까지, 어린 아이에서 성인남녀까지, 민중계몽교육에서 抗戰教育和 민주교육까지 매우 넓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것을 모두 포괄하였다. 이를 위해 도행지는 특히, 자신의 부와 명예를 뒤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교육 사상을 이행하였다. 그가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 충실하면서 생활과 실천을 중시한 것은 바로 나와 여기와 지금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행지의 교육적 가치를 나, 여기, 지금과 연계하여 그의 교육사상에서 알아보았다. 그가 주장한 생활교육은 바로 나, 여기, 지금에 충실하여 나에서 너로 확장 시켜가면서 교육의 참의미를 되살리자는 것과 통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教學合一의 교육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지금과 여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숨 쉬는 곳으로서 도행지가 말한 생활과 밀접하다. 도행지는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여기와 지금 즉, 생활을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나와 여기와 지금에 기초한 사유는 도행지의 삶과 교육사상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

도행지가 평생을 바쳐 주장하고 실천한 생활교육과 실천 중시의 교육은 당시와 현대 사회에 많은 의미를 제공한다. 교육은 기회를 보장하는 최고의 사회적 수평장치이자 사회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로서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육경쟁에서 그 승패가 좌

우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 앤드루 돕슨(Andrew Dobson)은 “한정된 체계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생산과 소비형태처럼 지속불가능하다”²⁴⁾고 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서구적 계몽 이념에 대한 반성을 실현하고, 동양의 오랜 전통 속에 유지해 왔던 인간 중심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의 교육은 서양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대 이후 인류는 문명과 발전이란 미명하에 경쟁의 끊임없는 노선을 경주해야 했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경외와 공존을 제거했고, 자신의 노동과 여가에서도 근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종하여 그 외의 것을 잃어버렸다. 결국 인류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누군가는 인류 과학의 발전과 우주의 개발로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반박할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결국은 한 개인 개인에게 종속되고, 한 개인은 많은 제한과 한계의 한정된 체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인류 각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폭주하는 열차의 질주를 막을 길이 없는데 그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동양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중국은 예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많이 했고, 이를 통해 중국과 인류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인도의 불교를 중국화한 저력에서도, 과거제도를 만들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한 것에서도, 현대의 정치와 경제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을 취한 채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공자의 부활에서도 이러한 기대를 걸고 이러한 기대가 성공으로 매듭지어지길 희망한다.

그러므로 서양의 가치관과 방법론의 한계와 교육의 문제를 혁파할 새로운

24) 앤드루 돕슨, 정용화 옮김,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1994, 248쪽.

25) 김덕삼·이경자, <동서양 프레임을 통한 근현대 중국 교육에 대한 성찰>, 《중국지식네트워크》, 2016년, 164쪽.

패러다임의 제시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도행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나와 여기와 지금을 기초로 하여 너와 저기와 미래를 향하는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김귀성, <陶行知의 生活教育論>, 《정신개벽논집》 Vol.9, 1990.
- _____, <陶行知의 兒童教育論>, 《教育研究》 Vol.- No.10-11, 1992.
- _____, <타오싱쯔(陶行知) 생활교육론의 사상적 배경 : 그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Vol.26, 2001.
- _____,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내일을 여는 책, 1996.
- _____, 《타오싱쯔(陶行知) 생활교육론의 전개》, 文音社, 2002.
-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中國道教》 73, 中國道教學會, 2003.
- _____, 《中國 道家史序說 1》, 景仁文化社, 2004.
- _____, <《장자》의 현대 교육적 해석>,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 _____, 《文受創; 문화의 수용과 창조》, 북코리아, 2013.
- 김덕삼, <顏元과 陶行知에 대한 국내 연구 상황과 의미 분석>, 《인문학연구》, 2016
- 김덕삼·이경자, <실천의 측면에서 본 안원과 도행지의 교육사상>, 《儒教思想文化研究》, 2016.
- _____, <동서양 프레임을 통한 근현대 중국 교육에 대한 성찰>, 《중국지식네트워크》, 2016.
- 김덕삼·최원혁, <선천역학에 나타난 공감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유교사상문화연구》, 2014.
- _____, <선진유가에 나타난 공감으로서의 나 여기 지금>, 《유교사상문화연구》, 2013.
- _____, <인문학 위기에 대한 나, 여기, 지금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접근>, 《인문연구》, 2013.
- Gene E. Hall · Shirley M. Hord 공저, 양성관 외 공역, 《학교 변화와 혁신 패턴, 원리, 당면과제》, 학지사, 2011.

- 도행지 저, 김귀성 편역, 《생활이 바로 교육이다》, 내일을 여는 책, 1996.
- 陶行知, 《陶行知全集》 第2卷, 湖南教育出版社, 1985.
- _____, 《陶行知全集》 第1, 2, 3,4卷, 四川教育出版社, 1991.
- _____, 《中國教育改造》, 東方出版社, 1996.
- 董宝良 主編, 《陶行知教育名篇選》, 人民教育出版社, 2015.
- 손승희, <武訓, 《武訓傳》 批判과 平反>, 《대구사학》 104, 2011
- 宋恩榮, 呂達主編, 《當代中國教育史論》, 金德三, <莊子思想與當代教育>, 人民教育出版社, 2004.
- 앤드루 돕슨(Andrew Dobson), 정용화 옮김,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1994.
- 이경자, <도행지의 생활교육사상>, 《교육비평》 Vol.11, 2003.
- _____, <타오싱즈 생활교육론에 나타난 “생활”의 의미>, 《교육철학연구》 Vol.38, 2007.
- 이병주, <도행지박사(陶行知博士)(1891-1946)와 중공의 교육이념>, 《중소연구》 Vol.1 No.1, 1975.
- _____, <中共의 陶行知教育思想批判(1951~53)>, 《東亞研究》 Vol.10, 1986.
- 任時先, 車錫基 譯, 《中國教育思想史》, 教學研究史, 1989.

< Abstract >

Educational Thought of Tao Xing Zhi Viewpoint on 'I, here and now'

Kim, Dug-sam • Lee, Kyung-ja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educational the thought of the Chinese educator Tao xingzhi(陶行知) by combining the viewpoint of the paradigm changes of Chinese education and the framework of 'I, Here and Now'. The common point of educational incidents that changed the paradigm of education in the history is faithfulness to the inner demand voice from 'I, Here and Now'. First of all, I studied the educational value of Tao xingzhi's thought from his

individual life in the viewpoint of 'I, Here and Now'. In the life of Tao xingzhi, his educational thought was extended from pre-school education to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from rural to urban, from farmers to factory workers, from children to adults, from popular enlightenment education to anti-war growth and democratic education. Tao xingzhi practised his educational thought focusing on demands from the viewpoint of 'I, here and now' rather than being fixed on the stable one point. In particular, it is because Tao xingzhi was faithful to the viewpoint of 'I, here and now' that he abandoned his wealth and honor, entering the rural areas, practicing and teaching directly while emphasizing the practice.

Next, the educational value of Tao xingzhi's philosophy was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framework of 'I, here and now'. Tao xingzhi's Life education he insisted is faithfulness to 'I, here and now' and extending 'I, here and now' to 'You, There and Later' to revive the true meaning of education. This leads to emphasis of the cohesion of teaching and learning(教學合一). 'Here and Now' where we live and breathe are close to the concept of the life in Tao xingzhi stressed. Tao xingzhi insisted education needs to be focused on 'I, here and now', that is to say, the life itself. As stated above, the life and educational thought of Tao xingzhi shows the reasoning based on 'I, here and now' in all aspects. He tried to make the most appropriate choice based on the framework of 'I, here and now'.

Key words: 'I, here and now', Tao xingzhi, China, Education, paradigm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9. 09.	2017. 09. 16.	2017. 09. 30.